

# 교회를 위한 의견

이 성전 교화상임위원회 전문위원

1. 교단의 교회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인들의 종교에 대한 태도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금년(1999년 6월과 7월)에 각각 발간된 문화관광부의 종교자료집과 한국종교인 평화회의의 '99 종교지도자 세미나 논문 및 결과 자료집을 참고하였다. 이들은 최근의 자료라는 점과 종교에 관련된 영역에서 한국의 석학들이 참여하였다는 데에서 자료로서의 의미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새 천년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어령씨는 새 천년의 과제가 문명-문화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될 것과 그 중심에 종교 파워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은 종교인에게 결코 긍정적 지지와 기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지성들은 종교의 역할에 제한을 두거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길희성 교수가 종교적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질서는 지켜져야만 한다고 하는 주장은 종교와 사회의 관계를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논리의 확대에 따른 공공영역의 축소를 앞으로 사회의 문제로 지적하고 가족질서의 재 구조화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정책적 비전의 수립이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종교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교조적인 교리를 내세우거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종교의 울타리 안에서 평화를 누리려 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이때문에 세계가 점차로 제3의 섹터에 의해 더 좌우되기 시작하였고 그 것은 바로 시민사회의 영역이라고 한다. 이 영역은 자발성과 도덕성에 기초를 두고있다는 것이다.(성공회 대학교 이 재정 총장)

이러한 상황에서도 종교에 대한 기대는 남아있다. 종교의 참된 교화를 통하여, 올바른 비판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의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 기준은 올바른 사회적인 이념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 이 이념은 곧 정신의 대전환을 이룩하여 역사의 큰 물줄기로 흘러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종교 자체 내의 도덕성이 회복될 것을 전제로 한다. (한양대학교 윤석산) 종교가 초월적 언어로 현실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 가까운 시장의 언어로 현실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다. 종교가 윤리 면에서 사회적으로 앞선 상황에서 사회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고 시민운동 이념의 공급처가 될 것을 주문하기도 한다. 이들은 종교가 더 이상 유토피아니즘에 매달려서도 안되고 나아가 메시아니즘이나 포기할 수 있어야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고언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종교에 대한 태도는 이제 종교가 해야 할 일은 전국민의 의식개혁 운동의 선봉에 서는 일이며 그것은 먼저 타자에 대한 근본자각이 있은 연후에 가능할 것이라는 충고를 남긴다.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김용정) 한스 조나스는 인류 미래의 희망을 ‘지구상에서 인간적 궁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소박한 희망’이라고 표현한다. 이제 종교는 칼 포퍼가 말하는 ‘이성적 합의와 공감을 통해 확실한 잘못을 고쳐갈 수 있는 열린사회’를 지향하는 인류 이성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2. 원불교는 파란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함을 개교의 동기로 선포한 소태산 대종사의 뜻을 이어 적극적으로 무아봉공(無我奉公)을 실천하려는 교역자들의 주도로 이끌어져왔다. 이제 교단은 1990년대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달성됨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양한 방향에서 분출되는 시점에 서있다. 통일문제라든지 산업사회의 제 문제, 여성, 환경 등의 문제들이 이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교화의 면에서 앞으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현대 이후의 사회는 복지사회를 지향해 나가고 있고 복지사회는 누

구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종교의 사회적 봉사의 내용 또한 차원을 달리해 나가야 할 시점에 있다.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도움이 아니라 인간의 최고의 가치실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는 의미이다. 이는 물론 종교의 영원한 과제로서 오늘날 새롭게 제기된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의 복지문제가 상당부분 사회보장을 통해 정비될수록 새롭게 부각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경제적 빈곤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무한경쟁 사회로 돌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서 대두되는 문제가 인간의 풍요로운 영성(靈性)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피곤하고 지친 심신을 구제해주며 풍요로운 근원적 생명력을 계발해내고, 영적 풍성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 미래 사회에서의 종교의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원불교는 '훈련'이라는 특별한 수양의 기간을 정하여 정신을 수양하고 심신의 근원적 생명력을 회복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 훈련 체계를 통해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교화를 위한 정책을 세워가는 데에서 이러한 문제는 훈련과 복지의 면에 연결지어 살필 수 있다. 먼저 훈련의 면에서 두 가지의 제안을 할 수 있다.

- 1)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정신적 피로와 지친 심신을 달래주고 근원적 생명력을 계발하며, 영적 풍성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훈련을 통한 교화이다. 이는 오늘날의 서구사회(예, 미국의 요가난다 쉬라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양사상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역할로, 미래 종교의 한 존재양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2). 이러한 사회의 주류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무력감이 좌절과 자포자기로 나타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회적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쉽다. 이들을 위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환경에 대한 수용적이며 긍정적 자기극복의 노력을 도움으로서 사회 속에 자신을 무리 없이 편입시킬 수 있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도덕적 자발성과 적

극성을 격려하는 훈련이다. 요즈음의 사회교육의 역할을 교회에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복지의 면에서 살펴보면 원불교 교회의 장은 그 곳 사람들의 생활구역이라는 점이다. 또한 오늘날에 복지는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데에 있지 않고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데에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종의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그러나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외적인 조건과 함께 내면적인 자기 계발과 정신적 향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활동이 해야하는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1) 그 지역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교회의 차원에서 해결해가는 것이다. 대종사님께서 최초의 교회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저축조합운동을 하시고 생활의 개혁을 주도하시는 점에서 시작하신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원불교 교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총교당과 고창교당이 지역교회에 성공한 원인은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2) 지역의 관과 종교 지도자 유지들과 교회 차원에서의 유대관계를 맺으며 협력해가는 것이다. 이제 사회는 종교의 경제적 상속에 대해서도 당연시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종교의 역할도 경제적 도움보다는 그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을 교회의 차원에서 원칙적이고 정신적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진행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과의 관계와 지역 유지들과의 관계가 교회의 차원에서 이루어짐으로서 역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교단은 한국의 근대사에서 시대에 따른 역사적 과제에 직면하여 더 불어 살아간다는 기본입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에 노력하여 왔다. 이는 대체로 생활방식이나 예법 등에서 혁신적이며 진보적인 입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혁신적이며 진보적인 성향들은 당시에는 획기적이었으므로 구습을

탈피해야 한다는 근대 지향적 사고를 지닌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들이 전통적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려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전통사상인 한국의 고유신앙과 유·불·도 삼교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이를 균형 있게 재해석해 내며 서구의 사상들과도 무리 없이 접목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원불교의 사상은 폭과 깊이를 지닌 새로운 발전된 사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인류 역사에 사상적, 문화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민족적 토착화와 함께 세계적 보편종교로서 승화되어 인류 구원을 실현해나가도록 그 이론적 정립과 구체적인 실현의 방법을 찾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상적 검토와 더불어 이에 근거하여 민족의 문화에 긍정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화는 지역문화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이를 심화시키고 승화시키는 노력이 교화의 차원에서 시도될 필요가 있다. 천주교의 한 외국인 신부는 천주교의 교리를 ‘불공’ ‘인연’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전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고 말하고 있는 글을 읽었다. 전통에 뿌리내리는 작업은 바로 문화의 이해와 이에 대한 적극적 전승의 노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교화의 차원에서 이는 문화에 뿌리내리는 작업이 될 것이며 동시에 교화의 적극적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정산종사님께서 제시한 삼동윤리를 실천함에 있어 교단은 그 동안 주로 동원도리의 실천에 중점을 두어왔다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종교간의 회통에 역점을 두고 종교연합운동에 힘을 기울였다. 이 분야가 가장 원론적인 사상적 바탕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기연계나 동척사업의 분야도 균형 있는 관심을 두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동기연계에 해당되는 분야 중 두드러진 것으로서는 민족의 문제, 여성문제, 환경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여성문제에 대해서 원불교는 초기 교단사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쌓아왔으나 요즈음은 새로운 발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민족통일이나 환경에 대한 문제 역시 절실한 당면과제이나 아직 기대만큼의 역할은 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동척사업의 분야는 이념의 갈등이나 문화의 다양한 영역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한다. 종교와 과학의 조화, 종교와 정치의 협력에 관해서는 대종사

님께서 그 중요성을 원론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해방 후 정산종사님께서는 『건국론』을 통해 중도적 이념의 모색이라든가 종교와 정치, 교육, 과학, 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관심이 역동적으로 계승, 발전되지 못하고 원론적인 명제를 강조하는데 치우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시민사회의 부상을 예견하고 있다. 특히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의 도덕성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요즈음 NGO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그 영향력 또한 급속도로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지원, 동참하여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것도 교화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역할은 역사의 한 부분에서 미쳐 역할하지 못했던 약점을 만회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종교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과 교화의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갈 것인가를 그간의 생각을 토대로 정리해 보았다.